



# “반찬가게 아줌마 변신 오랜만의 멜로 설레요”

드라마 '일타 스캔들' 전도연

한동안 절망감, 상실감 등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주로 연기해 온 전도연이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속 명량한 캐릭터로 돌아온다.

전도연은 9일 온라인으로 열린 tvN 새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 제작발표회에서 “밝은 매력에 끌렸다”며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받은 밝은 대본이었다”고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일타 스캔들'은 고등학생 딸을 위해 치열한 입시 현장에 뛰어들어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전도연 분)과 유명 수학 강사 최치열(정경호)의 로맨스를 그린다.

전도연이 연기한 남행선은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였지만, 가족을 위해 선수 생활을 접고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씩씩하고 따뜻한 인물이다.

전도연은 드라마를 통해 사랑스러운 매력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잊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고, 부담스럽기도 했다”며 “저도 저를 보는 게 어색하기도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시길 궁금하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혼자 딸 키우며 입시전쟁  
수학강사 역 정경호와 로맨스  
“밝은 역할, 잊었던 내 모습 나와”  
가족 중심 이야기... 14일 첫 방

고 덧붙였다.

그는 “연기를 할 때 뭔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안했던 것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한다는 점에서 남행선에게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과의 멜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라 불편함도 있었는데, 실지 않은 불편함이었다”며 “행선은 (치열에게) 듣기 좋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게 주변을 밝게 빛이 나게 한다”고 귀띔했다.

전도연의 상대역 남치열 역은 정경호가 연기했다. 정경호는 대선배인 전도연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작품에 합류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정경호는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많

다. 그런데 선배님 연기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으시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초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경호는 극 중 수학 강사 남치열을 연기하기 위해 오랜만에 수학 문제를 들여다보고 머리를 싸맸다고도 했다. 그는 “강의 장면을 위해 잠시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헛수고라는 걸 깨달았다”며 “실제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준비했다. 촬영 때 100명 정도 실제 학생들이 있어 틀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다”고 웃었다.

드라마 연출은 유재원 PD. 극본은 양희승 작가가 맡았다. 두 사람이 '고교처세왕'(2014), '오나의 귀신님'(2015)에 이어 세 번째로 함께하는 작품이다.

아들 학원에 갔다가 치열한 교육 현실을 피부로 느꼈다는 양 작가는 “입시 배경 드라마인 만큼 학생들의 애환도 담겠다”며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도 호통볼 같은 밝은 가족을 중심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박진연의 문화카페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 지난 10일, 광주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광주시문화예술상 오지호미술상 본상'을 수상한 서양화가 정송규 관장의 축하를 겸한 신년 인사회였다. 하지만 이날 모임은 당초 '예정에 없던', 매우 이례적인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7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꽃다발과 축하 인사를 '한달이 지나서야' 전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지호 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한 광주시로 부터 공식 통보 받지 못하고 수상자인 정 관장이 시상식이 끝난 후 후손측에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 뒤늦게 '저간의 사

성된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수상자를 발굴해 권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전국구 브랜드로 떠오른 '이인성 미술상'은 광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근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의 예술 정신과 한국 미술발전을 기리기 위해 2000년 제정한 이인성 미술상은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금 5000만 원과 대구시립미술관 초대전(전시예산 1억~1억5천만원, 전시기간 110일)을 제공해서 인지 작가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반면, 오지호 미술상은 단돈 400여 만 원(도록 제작 포함, 2020년 기준)의 비용으로 작가가 직접 전시장을 빌려 1~2주일내에 전시를 끝내야

## 거장에 대한 예의

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축하의 자리로 시작된 모임은 오지호 미술상의 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져 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미술, 문학, 국악 등에서 송고한 예술정신을 남긴 박용철·김현승·정소파·허백련·오지호·임방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여하고 있다. 하지만 변변한 특전과 부상이 없어 매년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최된 시상식이 대표적인 케이스. 전제 9개 시상부문에 김현승문학상, 허백련미술상 본상, 오지호미술상 본상, 임방울국악상 본상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오지호 미술상 본상은 과거 세 차례나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강원도 양구의 '박수근 미술상'과 대구의 '이인성 미술상'이 매년 국내 미술전문가들로 구

하다 보니 미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 '허울 좋은' 수상작가전으로 불린다.

물론 미술상의 위상이 상급과 부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닐 터. 하지만 오지호미술상이 국내 미술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의 창작 의욕을 키우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오지호미술상과 외제 허백련상을 '광주문화예술상'에서 분리해 브랜드화하고 대구시처럼 시립미술관에게 운영을 맡겨 내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거장에 대한 예우이자 예향 광주의 미래다.

이날 행사가 끝나갈 즈음, 화창시절 오지호 화백과의 일화를 들려준 정 관장의 소화가 목격할 여운을 남긴다. “다른 도시나 외국에 나갈 때 항상 광주 출신 작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겐 오지호라는 큰 예술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향담당국장, 선임기자〉

## 문화 향유의 기회·콘텐츠 교류 확대

ACC재단, 17일 설립 1주년

'전쟁 후에' 북유럽 유토피아, 어린이 체험관 개편, '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의 서비스 런칭...

오는 17일 설립 1주년을 맞는 ACC재단은 올해 문화콘텐츠의 보급을 매개로 문화 향유 기회 증진과 아울러 다양한 기관과 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기관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조직 안정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ACC 창제작 공연과 전시 등 66건을 유통했다.

특히 5·18 이야기를 다룬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아외 공연으로 재제작해 세종과 밀양, 진주 등 전국 4곳에서 순회 공연을 진행했다. 한국현대무용협회에서 안무가상과 무용수상을 받은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는 프랑스와 헝가리 무용축제에 초청 받았으며 올해는 6월 미국 무용축제 초청공



5·18 40주년 기념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

〈광주일보 자료사진〉

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선보인 '기차나 GO! 광주'는 한달 간 2만20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ACC 대표 콘텐츠인 어린

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펀 8'은 친환경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5만8000여 명이 방문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윤여정, 스피이버그 감독 기획사 CAA와 계약

배우 윤여정(사진)이 미국 할리우드의 대형 연예 기획사인 CAA(Creative Artists Agency)와 계약을 체결했다.

윤여정 측은 10일 “윤여정이 미국 CAA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등을 받은 윤여정이 CAA와 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CAA는 톰 허크스와 스티븐 스필버그, 제네이아, 리스 위더스푼 등 할리우드 스타 배우와 감독들이 속해있는 할리우드 대형 에이전시다. 한국 배우 가운데는 이정재, 강동원, 정호연 등이 CAA와 계약을 맺었다.



윤여정은 지난달 한국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